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실태 조사

이내영¹ · 한지영²

¹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Health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Lee, Nae-Young¹ · Han, Jiyong²

¹Associate Professor, ²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al and Life Science,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health-related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12 international students of 4 universities in P city regarding perceived health belief, health status, health habits, health management and medical costs. **Results:**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perceived that their health belief was good and most of them belonged to healthy group. Also they reported good health habits and less severe physical complaints which can be easily treated. However, the portion of underweight or obese was large and physical complaints were frequent. **Conclusion:** To promote health of international students, nurses in university or community should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to improve health habits and to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Key Words: University health services, Temporary migration, Heal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문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의의를 가진다(Kim & Kim, 2005). 이 중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유치국에 장단기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학술적 이점을 가져다 주므로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모터'(Ahn & Choi, 2008)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유학 후 진로가 자국 내 취업이 55.8%, 외국기업 취업이 25.8% (Kim & Kim, 2005)로 출신국의 미래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향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An, 2003)이므로 유학생 개인의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07).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해외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2010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Jun,

2004). 또 과거에 비해 외국인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 학문적인 목적, 직업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학을 오면서(Kim, 2004),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3년 12,314명에서 2009년 75,850명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35% 이상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이처럼 입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와 학업문제, 건강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률은 상당히 낮다(Kim, 2004; Kim & Kim, 2005).

외국인 유학생들은 적응의 어려움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어렵다(Kim, 2009). Lee와 Ji (2006)의 연구에서는 유학생 활동 동안 학업에 영향을 준 개인적인 요인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고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이 많다고 답하였다. Park (2008)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필요한 수준과 실제 지원의 양 사이의 차이는 유학생들의 만족이나 질병과 상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학업 성취 수준뿐 아니라 신체적

주요어: 대학 건강 서비스, 일시 이주, 건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an, Jiyong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al and Life Science, Silla University, San 1-1 Gwaebeop-dong, Sasang-gu, Busan 617-736, Korea
Tel: +82-51-999-5871 Fax: +82-51-999-5176 E-mail: naeyoungle@silla.ac.kr

투고일: 2011년 4월 19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24일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25일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한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 측면까지 고려하여야 한다(Zou, 2009). 이 중 건강문제는 언어와 학업문제에 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국내 생활적응력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며, 학문적 측면에서도(An, 2003; Lee, 2006; Noh, 2003; Park, 2000) 주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한정되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 인식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추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건강상태 및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문제와 건강관리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외의 외국인 유학생 112명이다. 사례-대조 연구는 조사 대상자들을 결과에 따라 사례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관찰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1:1 대응 설계하였다. 사전 조사에서 대상자 300명 중 80.7%의 국적이 중국으로 국적에 대한 편중을 통제하기 위해, 국적이라는 변수의 관점에서 층화하여 각 층에서 중국인 56명과 비중국인 학생 56명을 동일한 인원로 집단 간 개체를 서로 대응시켜 분석하였다(Figure. 1). 다중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위한 예상 표본 수는 추정 효과 크기 1.3,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mean exposure 1, R² other X=0, X 분포는 Poisson ditribution으로 두고 G-Power 3.01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67 이므로 본 연구의 표본 수 112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지각(Perceived Health Belief)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Speake, Cowart와 Pellet (1989)의 도구를

Back (2005)과 Park (2009)이 수정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 시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총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매우 나쁘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좋다’의 5점으로 측정하여 최저 2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Back(2005)의 연구에서 .89, Park (2009)의 연구에서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1이었다.

2) 건강상태

건강상태는 Cornell 대학의 Brodman, Deutschberger, Erdmann, Lorgier와 Wolff (1954)에 의해 고안된 설문식 건강조사표인 Cornell Medical Index (C.M.I.)를 Nam (1965)과 Ok (2000)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간이화한 “C.M.I. 간이 건강 조사표”에 사전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7개 증상을 추가하여 개원의 1인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은 후 최종 신체적 증상 30문항과 정신적 증상 17문항을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며 ‘예’라고 응답한 문항 수가 20문항 이하이면 ‘건강군’으로, 21문항 이상이면 ‘비건강군’으로 구분된다. Ok (2000)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1이었다.

3) 건강습관

건강습관은 국민건강 증진 종합 계획 Health Plan 2010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의 6개 영역 중 구강보건을 제외한 5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5개 영역은 금연 2문항, 음주 3문항, 운동 2문항, 영양 3문항, 만성질환관리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은 Kwon (2004), Lee (2001), Choi (1998), Jang (2006)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후 지역 보건소장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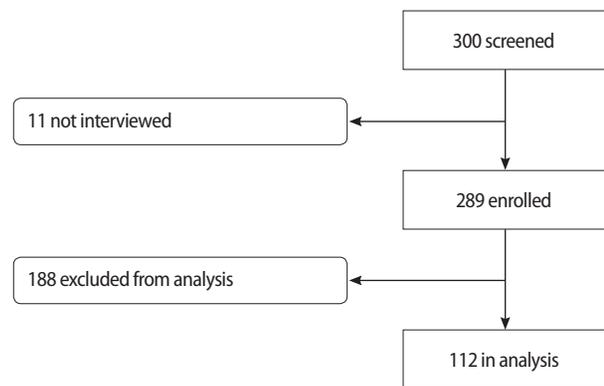


Figure 1. Flow of study participants.

보건소 간호사 1인, 개원의 1인, 간호학 박사 2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건강관리는 지식 정도 3문항, 실제 관리여부 1문항, 구체적인 방법 1문항을 조사하였고, 질병 치료 2문항,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해서는 서비스 종류 3문항, 편의성 1문항, 만족도 1문항, 개선점 1문항을 조사하였다.

3. 자료 수집

2009년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대학의 유학생 건강 상담 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훈련된 조사원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은 후 설문 조사하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응답하게 하였고, 설문지 작성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는 각 언어별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용 언어를 파악한 뒤, 한국어로 된 도구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였으며 이를 각 언어별로 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예비 조사하여 이해정도를 확인한 후 최종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총 300부 중 유효한 답변을 한 289부를 회수하였고 비중국인 학생 수 56명을 기준으로 총 112부를 분석하였다. 건강상태 지각, 건강상태, 건강습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은 빈도와 백분율로 기술 통계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건강상태를 종속 변인으로 두고 일반적 특성, 건강습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부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subset regression을 통하여 모든 경우의 수로 독립 변수를 조합하여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정규분포하지 않는 분산형 자료에 적합한 Poisson regression (Park, 2010)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 변인을 최종 확인하였다. 통계 패키지는 SPSS 12.0과 STATA 11.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외국인 유학생 112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47명(42.0%), 여자가 65명(58.0%)이었고, 연령은 평균 22.8세이었다. 키는 평균 168.8 cm, 체중은 평균 62.7 kg으로 저체중(BMI < 18.5)이 16명(14.3%), 정상(BMI ≥ 18.5, BMI < 25)이 82명(73.2%), 경도비만(BMI ≥ 25.0, BMI < 30)이 10명(8.9%), 고도비만(BMI ≥ 30) 4명(3.6%)이었다. 국내 거주기간은 평균 20.4개월로 최소 2주에서 최대 84개월이었다. 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이 60명(53.6%), 소속 계열은 상경대가 39명

(34.8%)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 104명(92.9%), 기혼 8명(7.1%)이었다. 거주 형태는 기숙사가 77명(68.8%), 한 달 생활비는 30-60만 원이 67명(59.8%), 경제원은 자비가 54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학내 진료소는 58.9%가 이용경험이 있었고, 39.3%가 건강관련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2.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 지각

대상자들의 건강상태 및 건강상태 지각을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대상자의 92.9%가 건강군이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좋음이 59.8%, 보통이 33.9%, 나쁨이 6.3%였다. 또 건강상태와 건강상태 지각의 상관관계는 $r = .32, p = .001$ 로 실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상태의 지각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신체적 건강상태

대상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Table 1과 같다. 신체계통 별로는 신경계 건강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증상에서는 기타 성관련 문제(45.5%), 기타 구강질환(40.2%), 눈의 피로감(35.7%)을 가장 많

Table 1. Physical Complaints* (N = 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ardiovascular (n = 31)	Frequently suffer from chills	10	8.9
	Have severe soaking sweats at night	9	8.0
	Often bothered by thumping of the heart	8	7.1
	Often have difficulty breathing	4	3.6
Respiratory (n = 28)	Nose continually stuffed up	11	9.8
	Have to clear your throat frequently	10	8.9
	Often catch severe colds	7	6.3
Gastrointestinal (n = 49)	Usually feel bloated after eating	18	16.1
	Constantly suffer from bad constipation	11	9.8
	Often suffer from an upset stomach	11	9.8
	Suffer from freq loose bowel movements	4	3.6
	Often feel a choking lump in your throat	3	2.7
Musculoskeletal (n = 43)	Ever troubled with vomiting	2	1.8
	Have severe pains in arms or legs	14	12.5
	Back pains hard to keep up with work	10	8.9
	Constant numbness/tingling in body part	10	8.9
Neurological (n = 87)	Suffer from back pain	9	8.0
	Eyes continually blink or water	40	35.7
	Difficulty falling or staying asleep	14	12.5
	Suffer badly with frequent severe headaches	14	12.5
Urogenital (n = 76)	Often have spells of vertigo	10	8.9
	Often have spells of severe dizziness	9	8.0
	Other sexual problems	51	45.5
	Menstrual pain	20	17.9
Dental (n = 80)	Get up every night and urinate	4	3.6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1	0.9
	Others	45	40.2
	Dental caries	15	13.4
	Often had severe toothaches	15	13.4
	Periodontitis	5	4.5

*Multiple response.

이 호소하였다.

2) 정신적 건강상태

대상자들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88.4%가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비평이 마음에 걸린다'(40.0%), '갑작스런 소리에 심하게 놀래거나 떨리는 편이다'(39.3%)의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3. 건강 습관

대상자들의 건강습관은 Table 3과 같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64.3%, 간식을 하는 경우가 62.5%, 규칙적인 배변을 하는 경우가 58.9%,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경우가 86.6%,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67.9%였다. 대상자의 22.3%인 25명이 흡연했으며 흡연량은 이 중 66.7%가 하루 1/2갑 미만이었고 흡연기간은 56.0%가 1-5년이였다. 술은 전체의 72.3%인 81명가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69.1%가 1주일에 1회 미만 음주를 했고, 고도음주(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를 하는 경우는 월 1회 미만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기간은 1-5년이 40.2%로 가장 많았다.

4.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대상자들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은 Table 4와 같다. 건강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관심이 아주 많거나 많은 경우가 47.3%이며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82.7%가 실제 건강관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Table 2. Psychological Complaints* (N = 112)

Characteristics	n	%
Under stress through every day living	99	88.4
Criticism always upset you	45	40.2
Sudden noises make you jump/shake badly	44	39.3
Considered a nervous person	34	30.4
Always do things on sudden impulse	30	26.8
Angry to have anyone tell you what to do	29	25.9
Annoyances get on your nerves	24	21.4
Often suddenly scared for no reason	24	21.4
Often awakened by frightening dreams	24	21.4
Easily upset or irritated	23	20.5
Feel alone and sad at a party	21	18.8
Strange people or places make you afraid	20	17.9
Usually feel unhappy and depressed	20	17.9
Sweat/tremble during exams/questioning	18	16.1
Things get on your nerves/wear you out	16	14.3
Considered a nervous person	13	11.6
Life look entirely hopeless	11	9.8
Extremely shy or sensitive	10	8.9
Wish you were dead	9	8.0

*Multiple response.

방법으로는 걷기(46.4%), 수면관리(39.3%), 식사관리(35.7%), 체조 및 운동(32.1%)의 순으로 많았다. 질병치료는 약국 방문(33.0%), 병의원 방문(29.5%), 자가치료(28.6%)의 순으로 많았고, 이 중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큰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45.5%로 가장 많았다. 아플 때는 대부분 모국 친구(49.1%)에게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16.1%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46.4%)을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의료비는 71.4%가 자비 부담하였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95.6%가 보통이거나 만족한다고 했고, 외국인 보건에 대해서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41.0%였다. 의료서비스의 개선점으로는 의료비 감면혜택(52.7%), 언어 문제해결(41.1%), 외국인 전용 창구 개설(33.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5. 건강상태 및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일반적 특성

Table 3. General Health Practices (N = 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Eating breakfast	Yes	40	35.7	
	No	72	64.3	
Having a snack	Yes	70	62.5	
	No	42	37.5	
Regular bowel movements	Yes	66	58.9	
	No	46	41.1	
Walking short distances	Yes	97	86.6	
	No	15	13.4	
Regular exercise	Yes	36	32.1	
	No	76	67.9	
Cigarette smoking (n = 25)	Amount of smoking (pack)	< 1/2	16	66.7
		≥ 1/2, < 1	7	29.2
		≥ 1	2	8.3
	Duration of smoking (yr)	< 1	6	24.0
		≥ 1, < 5	14	56.0
		≥ 5	5	20.0
Drinking (n = 81)	Number of drinks per week	None	56	69.1
		1-2	20	24.7
		3-4	5	6.2
	High-risk drinking*	None	13	16.1
		< 1 drink per month	23	28.4
		1 drink per month	18	22.2
Duration of drinking (yr)	1 drink per week	6	7.4	
	Almost every day	3	3.7	
	< 1	26	33.0	
≥ 1, < 5	33	40.2		
	≥ 5	22	26.8	

*The amount of alcohol consumed per drinking is more than 7 glasses of Soju (5 glasses for female).

Table 4.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 (N=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Interest in health care	Very much	15	13.4
	Somewhat much	38	33.9
	Not very much	49	43.8
	Not much at all	6	5.4
	Not sure	4	3.6
Knowledge on health care	Very much	12	10.7
	Somewhat much	27	24.1
	Not very much	53	47.3
	Not much at all	18	16.1
	Not sure	3	2.7
Health care	Yes	92	82.7
	No	20	17.9
Methods of health care*	Walking	52	46.4
	Climbing	11	9.8
	Physical exercise	36	32.1
	Dietary supplement	16	14.3
	Health screening	6	5.4
	Diet management	40	35.7
	Sleep management	44	39.3
	Facilities such as gyms	4	3.6
	Etc	3	2.7
Disease treatment*	Visit a clinic or hospital	33	29.5
	Visit a public health center	8	7.1
	Visit a drug store	37	33.0
	Home treatment	32	28.6
	None	11	9.8
Reasons not getting treatment* (n=11)	Difficulty in communication	2	18.2
	Economic burden	2	18.2
	From fear	1	9.1
	Out of time	2	18.2
	Not serious disease	5	45.5
	Etc	1	9.1
Persons helping with health problems*	Hometown's friends	55	49.1
	College advisor	8	7.1
	Korean friends	21	18.8
	Etc	17	15.2
Medical services experienced in Korea*	Vaccination	7	6.3
	Treatment of disease	15	13.4
	Health screening	52	46.4
	Health education	17	15.2
	Etc	28	25.0
Persons to pay medical expenses*	One's own	80	71.4
	One's families	17	15.2
	Friends	3	2.7
	Etc	10	8.9
	Insurance	4	3.6
Convenience in medical service	Very convenient	46	41.1
	Some what convenient	61	54.5
	Not convenient	4	3.6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Very satisfied	20	17.9
	Somewhat satisfied	25	23.2
	Not very satisfied	59	52.7
	Not satisfied at all	6	5.4
	Not sure	2	1.8
Problems with medical servic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46	41.1
	Support for medical expenses	59	52.7
	International health service center	37	33.0
	Foreign staff	10	8.9
	Not providing information of medical services	16	14.3
	Etc	2	1.8

*Multiple response.

중 성별, 체질량 지수, 한국거주기간, 기숙사 거주, 학내 보건소 이용 등 5개의 변수가 건강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10.3%의 설명력을 보였다($\chi^2=92.980, p<.001, R^2=.10$). 구체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1.2배 건강이 좋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1.7배 좋았다. 이에 반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할수록 건강상태가 1.0배 좋아지고 학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상태가 0.8배 좋았다.

건강습관 중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아침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유의하였다($\chi^2=52.800, p<.001, R^2=.06$). 즉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배 건강상태가 좋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1.5배 건강상태가 좋았다.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변수로는 건강관리 여부가 2.7%의 설명력을 보였다($\chi^2=18.430, p=.010, R^2=.03$). 구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건강상태가 1.3배 좋았다.

2) 건강상태 지각

일반적 특성($\chi^2=4.750, p=.980, R^2=.01$), 건강습관($\chi^2=5.750, p=.570, R^2=.01$),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chi^2=2.750, p=.840, R^2=.01$)은 모두 건강상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특성과 건강상태 및 건강지각 관련 요인을 파악한 연구로는 처음 시도된 연구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문제 제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건강문제와 건강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계, 학사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비만정도의 편차가 컸다. 조사 대상 289명 중 대부분이 아시아계이었으며 이 중 중국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Kim & Kim, 2005; Kim, 2007; Kim, 2008; Noh, 2003; You, 2008)의 출신국가 분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국적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중국계 56명을 기준으로 중국계와 비중국계를 동일 수로 설계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거주기간은 평균 20.4개월로 최소 2주에서 최대 84개월이고 학사과정이 53.6%로 가장 많아서, 여학생의 성격을 띤 1년 미만부터 대학교 및 대학원 진학의 고등 교육을 위한 3년 이상에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Health Status

(N = 1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B	SE	Wald	Odds ratio	95% CI	
General characteristics	Sex	0.20	0.09	2.19*	1.22	0.02	0.38
	Age	0.02	0.01	1.28	1.02	-0.01	0.04
	BMI	-0.02	0.01	-2.22*	0.98	-0.04	0.00
	Nationality	-0.07	0.11	-0.74	0.93	-0.28	0.14
	Duration of residence (yr)	-0.02	0.00	-6.64**	0.98	-0.03	-0.02
	Marital status	-0.12	0.20	-0.56	0.89	-0.52	0.27
	Dormitory residence	0.50	0.10	5.18**	1.65	0.31	0.69
	The cost of living	0.04	0.06	0.69	1.04	-0.08	0.16
	The major source of tuition fees	0.08	0.08	0.90	1.08	-0.09	0.24
	Utilization of university health center	-0.27	0.09	-3.07**	0.76	-0.45	-0.10
General health practices	Eating breakfast	0.27	0.09	2.99*	1.30	0.09	0.44
	Having a snack	-0.10	0.08	-1.16	0.91	-0.26	0.07
	Walking short distances	-0.21	0.17	-1.25	0.81	-0.54	0.12
	Regular bowel movements	0.13	0.08	1.57	1.14	-0.03	0.30
	Drinking	0.13	0.08	1.60	1.14	-0.03	0.29
	Cigarette smoking	0.08	0.06	1.49	1.09	-0.03	0.20
	Regular exercise	0.41	0.10	4.18**	1.51	0.22	0.61
Health care and medical service	Interest in health care	0.06	0.05	1.26	1.065	-0.03	0.16
	Knowledge on health care	0.05	0.05	0.84	1.047	-0.06	0.15
	Health care	0.28	0.12	2.34*	1.319	0.04	0.51
	Management of acute disease	0.15	0.09	1.62	1.163	-0.03	0.33
	Persons to pay medical expenses	0.02	0.04	0.68	1.024	-0.05	0.09
	Convenience in medical service	-0.01	0.11	-0.09	0.990	-0.22	0.20

*p < .05; **p < .001.

둘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실제로도 건강하였다. 대상자의 93.7%가 자신의 건강을 보통 또는 좋음으로 지각했고 실제로도 건강군이 92.9%였다. 재한 몽골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생의 56.0%만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며(Kim, 2007) 건강군이 75.9%에 불과한 점(Ok, 2000)과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고 실제로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에서는 성관련 문제와 구강질환을 제외한 구체적인 증상으로 눈의 피로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생리통, 소화불량, 충치, 치통의 순이었다. 눈의 피로감은 한국 대학생(Shin & Nam, 2002)에서도 가장 흔한 신체증상이지만 다음으로는 습차, 어깨 통증, 공복 시 속 쓰림, 눈의 통증을 흔한 증상으로 호소하여 내용과 순위 모두 차이가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건강상 상태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생리통, 소화불량과 같은 일시적인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므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내 진료소 등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학내 보건진료소 이용 경험이 41.07%에 불과하므로, 학내 보건 진료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충치, 치통 등 치과 질환은 일반적으로 고가의 의료비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에게는 더욱 취약한 건강문제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은 건강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건강 위해 행위인 흡연과 음주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중 흡연자는 44.6%로 한국대학생의 흡연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흡연량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반 이상(66.7%)이 반갑 미만으로 한국 대학생(Ok, 2000)에 비해 흡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흡연기간은 1-5년 미만이 36명(56.0%)으로 가장 많아 한국 대학생(Ok, 2000)들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전체의 72.3%만이 음주를 하여 20-29세 성인(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2006)과 대학생(Hong, 2007; Ok, 2000)이 모두 거의 음주를 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1주일 간 음주 횟수는 1회 미만이 가장 많고 1회 이상은 22.8%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 대학생(Ok, 2000)의 경우 1회 미만이 가장 적고 1회 이상이 가장 많다. 고도위험 음주 횟수는 남자의 경우 없거나(45.7%), 한 달에 1번 미만(23.6%)이, 여자도 없거나(68.2%), 한 달에 1번 미만(16.9%)이 가장 많았다. 음주 시작 시기는 1-5년 미만(68명, 39.9%)이 가장 많았다. 한국대학생의 경우(Ok, 2000)는 1-5년 미만이 57.8%이며, 5년 이상의 경우도 10.1%에 이르러 외국인 유학생들의 음주기간이 짧았다. 구체적인 건강습관을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는 한국대학생(Ok, 2000)에 비해 적었으며, 간식을 하지 않는 비율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09)의 결과와는 유사하였고, 한국대학생과 비교하면

Kim (2001)의 4.2%보다는 훨씬 높았다.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는 비율, 가까운 거리를 걷는 비율은 한국 대학생(Kim, 200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운동을 하는 비율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와(Kim, 2007; Ok, 2000; Park, 2009)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교적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Kim (2009)은 자국이 아닌 외국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신체적 건강 저하가 심각하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2008)은 건강에 필요한 수준과 실제 지원의 양 사이의 차이는 유학생들의 만족이나 유병률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개인생활에 대한 적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질병 치료보다는 건강유지 위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91.1%가 건강관리에 관심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에서도 '많다' 및 '매우 많다'가 34.8%로 월등히 많았으며, 실제 건강관리도 84.1%가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으로 걷기, 식사관리, 수면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응답하였다. 질병 시에는 병의원 방문이 29.5%인데 반해 약국 방문 33.0%, 자가 치료 28.6%로 많았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상시의 건강관리나 자가 간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특성을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는 질병 치료보다는 학내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소 등을 통해 건강유지 및 증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중병이 아니어서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도 건강검진이 가장 많은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외국인 보건 실태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은데다 의료비는 대부분(71.4%)이 자비 부담이었다. Lee와 Ji (2006)의 연구에서도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학업에 어려움을 준 제도적인 요인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지적하였다. Han (2009)도 보건복지부가 유학생에 대한 건강 보험료율 조정을 해야 하고, 생활지원으로 인근 병원과 건강보험(학생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으로 지적인 의료비 감면 혜택, 언어문제, 외국인 전용 창구 개설 등을 보완한다면,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늘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일반적 특성, 건강습관,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중 일부 특성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적 특성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학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습관 중에서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는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외국인 유학생 중 이상과 같은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개 광역시의 4년제 대학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험설계상 중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아 연구 결과를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중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실태상태와 건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건강문제를 반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국내적응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외국인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졸업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조화학적인 특성과 건강문제, 건강관리를 살펴 본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이며 비교적 중재가 쉬운 신체적 증상이 많고 건강습관이 전반적으로 좋아 건강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비만도에서 편차가 커서 저체중과 고도 비만 대상자가 많고, 일반적으로 조절 가능한 신체적 증상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건강문제는 유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학업과 더불어 유학생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성립된 건강습관은 청년기뿐 아니라 이후 생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Ok, 2000)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간호사가 좋은 건강습관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간호 및 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 내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학생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예비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관련 상담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셋째, 주기적인 상담과 개별 및 집단 면담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문제와 건강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건강문제 위주로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문제 각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Ahn, Y. J., & Choi, B. D. (2008). International student in Korea: Theoretical re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1, 476-491.

An, S. M. (200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the housing for foreign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Baek, Y. M. (2005). *Prediction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male office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Brodman, K., Deutschberger, J., Erdmann, A. J. Jr, Lorge, I., & Wolff, H. G. (1954). Prediction of adequacy for military service: Use of the cornell medical index-health questionnaire. *United States Armed Forces Medical Journal*, 5, 1802-1808.

Choi, H. L. (1998). *A study on health condition and medical requirement of the aged in rural a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Doo, K. J. (2003). The design base of institutional household management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16, 1-10.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Han, U. K. (2009).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with a focus on mong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Hong, S. H. (2007). *A study on weight control and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among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Junbuk National University, Junju.

Jang, B. Y. (2006). *A study on health situations and wants for medical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in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Wonju.

Jun, W. H. (2004). *Study Korea project*. Seoul: Ministry of Educ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Kim, J. E. (2009). *A study 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Kim, J. H. (2007).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system of international students at domestic university.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25, 411-414.

Kim, J. H. (2008). *A study for leisure constraint of international student: Focusing on leisure sports activ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im, K. S., & Kim, Y. T. (2005). Perception of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program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6, 43-66.

Kim, M. J. (2004). *Design of content based instruction university preparing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im, M. K. (2001). *Study on the effect of dietary behavior on the dietary intake and health statu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Retrieved Jun 27, 2011,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bbs=INDX_001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2006). *Woman statistics: Health*. Retrieved January 21, 2010, from <http://www.kwdi.re.kr>

Kwon, Y. S. (2004). *Program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care for the aged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Lee, I. S., & Ji, B. G. (2006). A study on a Chinese student's adaption of college life. *Industrial Management Review*, 29, 437-454.

Lee, M. J. (2006). *Development of scholarship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No. 2006-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Lee, M. R. (2001). *A study on the physical health problems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2010). *2010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Retrieved January 21, 2010, from <http://library.mw.go.kr>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Health plan 2010*.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Nam, H. C. (1965). *Study on the cornell medical index = A study on the cornell medical index = epidemiological study on cholera in Pusan area = A study on number of living children and "ideal" number of children in urban a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oh, J. H. (2003). *University marketing strategy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each nation (No. 2002-8)*.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k, C. M. (2000).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lth practices and health statu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Park, C. G. (2010). *Advanced statistics: methodological issues & strategies for nursing research*. Unpublished manuscript, Dong-A University, Busan.

Park, E. K. (2008). *A study on international migration of foreign students and their adaptation to local community - focusing on Daegu/Gyeongbuk area -*.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Park, T. H. (2000). *Study of the internationalization support and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No. 2000-8)*.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Y. S. (2009).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some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hinese student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Gongju.

Shin, D. M., & Nam, C. H. (2002). The complaining rate of physical self-consciousness symptoms for college students in Taegu,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 45-58.

Speake, D. L., Cowart, M. E., & Pellet, K. (1989). Health perceptions and life-

- styles of the elderly.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2(2), 93-100.
- You, W. (2008). *A study on the living of foreign student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Zou, Z. D. (2009). *A study on Chines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busan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